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인증제 시행

문체부, 평가대상 사업설명회 시작 내달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현장 조사 후 12월 최종 결과 발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전시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국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로, 이를 통해 국공립박물관 50개관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지난 36개관, 공립미술관 64개관 가운데 55개관(지난해 기준)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인증 대상 중 국공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조세박물관 ▲국립경향박물관 등 36개관이며 공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이영노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55개관이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2016년 11월 도입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 및 등록관 대상 평가인증제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달 평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은 해당 사실과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

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2018년과 지난해 진행된 국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범주 내에서 31개 내외로 구성된 세부 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평가 실시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소속 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기관을 보상하고 모범사례 공유 확산과 미인증기관 대상 상담, 평가 결과 연수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국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프로젝트 앙상블 련' 멤버들.

젊은 예술무대 '풍류마루'

국립민속국악원, 11일 '프로젝트 앙상블 련' 초청 공연
'Pure land+Requiem' 등 선배... 18일 정마리 컴퍼니 공연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1일과 18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젊은 예술무대인 <풍류마루> 공연을 개최한다.

11일 공연에는 '프로젝트앙상블 련'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통음악과 민요를 바탕으로 재즈, 탭고,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 중 'Pure land+Requiem'은 전남 진도 지방의 싹감굿 중 '길담굿'을 현대적인 선율로 재해석하여 한국의 미사 음악으로 표현했으며, 아쟁 연주자는 피아노와 아쟁을 동시에 연주하여 현대적인 선율과 전통적인 선

율이 어우러진 화려한 연주를 선보인다.

18일 정마리 컴퍼니공연은 '경계에서 중심을 보고 중심에서 경계를 생각한다'는

모토를 가진 보컬리스트 정마리와 뜻을 같이하고 협업하는 무용, 미술, 음악, 사진, 영상, 의상 작업자들의 예술창작 단체로, 이번 공연에서는 '정마리 대표와 손재영(거문고), 김상현(성우)이 출연해 전통 가곡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관람은 사전예약제(선착순100명)로 전화 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지역 청소년 14명이 만든 단편영화 3편이 지난 4일 순창 작은영화관 전체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2월에 열린 '우리.영화만들자2'

순창 청소년 자체제작 영화 시사회 성료

순창지역 청소년 14명이 만든 단편영화 3편이 지난 4일 순창 작은영화관 전체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가 직접 시사회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들을 응원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시사회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격려사와 단편영화 상영, 영화캠프 수료증 전달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로 확산을 우려해 참여학생 가족만 참여한 채 조용히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격려사에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계의 집중을 받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전 세계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영화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단편영화는 청소년 영화캠프

2기에 참여한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생 14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청소년 영화캠프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여군동 영화감독이 총 감독으로 지도를 맡으며,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제1기 영화캠프를 시작해 관내 중고등학생 11명이 단편영화 '무슨 생각하고 사니?'를 제작, 지난해 제13회 전북청소년영화제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여군동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말을 만들어서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점차 하나씩 발전되어가는 아이들 모습에 대견스러웠다"고 밝혔다. 여 감독은 학생들에게 직접 감명깊게 본 영화를 USB에 담아 선물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특성 반영

한국적 공유저작물 발굴

저작권위, 전라도 등 6개 지역서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창작단 모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적 공유저작물을 발굴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공유저작물 창작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공유저작물 창작단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에서 1팀씩 선발되며 광역시는 인근 도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 4개 분야이며 국내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원생이면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팀을 꾸려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창작단은 약 3달 동안 활동하게 되며 매달 특별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최종평가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팀에는 상장과 함께 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유저작물 창작단이 창작한 저작물은 기증 또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로 '공유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저작물 창작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13일 부안서 클나무필하모닉 '장난감콘서트'

부안예술회관서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 '장난감콘서트'를 무료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클래식 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에게 클래식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난감이라는 타이틀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공연은 킨더심포니(장난감심포니), 동요, 애니메이션 OST 등 눈과 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으로 구성해 아이들의 동심과 음악적 감수성을 자라게 하고 두뇌를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금산새 지휘자의 지휘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금산새 지휘자



를 초청해 음악회를 가졌다.

매년 40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기획 연주회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최고의 오케스트라이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

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장시 발열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좌석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 문진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아동들이 클래식을 좀 더 쉽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연주회로 많은 군민들이 찾아 즐거운 시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